

## 기억 포토 카드

김민정

한류 아이돌 열풍은 여기 중국 베이징도 마찬가지다.

아이돌 포토 카드! 우리들은 줄여서 포.카라 부른다. 코리아타운이 있는 왕징의 우리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오늘은 K팝 아이돌 신상 포.카가 학교 앞 문구점에 들어오는 날이다. 포토 카드 수집이라면 1, 2등을 다투는 절친 한결이와 나는 문구점에도 1등으로 도착했다.

기다렸던 카드 한 장을 사고 막 돌아서던 중 뒤에 있던 한결이와 부딪혔다. 그 바람에 한결이가 손에 쥐고 있던 포토 수첩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처음 보는 카드네?’

맨 뒷장이 펼쳐진 수첩에는 아이돌 사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사진들이 꽂혀져 있었다. 챗터미처럼 무너져 내린 건물을 담고 있는 그 이상한 사진들에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갔다.

“조심 좀 하지 박준수.”

한결이는 떨어진 포토 카드 수첩을 주워 들더니 입으로 후후 불었다. 한결이가 비닐 포켓을 매만지자 바스락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야, 그게 무슨 포.카야? 난 그런 건 처음 보는데?”

“넌 몰라도 된다.”

한결이는 대단한 걸 혼자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너스레를 떨며 책가방을 활짝 열었다. 풀어진 보자기 마냥 입을 짝 벌린 가방 안으로 수첩을 옥여 넣으며 말했다. “궁금하면 따라와 봐. 멋진 신상 포토 카드를 구할 수 있거든.”

“정말?”

내 말에 한결이가 묘한 웃음을 흘렸다. 가끔 장난도 치지만 없는 말은 하지 않는 녀석이었다.

한결이는 나를 데리고 자기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갔다. 우리집 단골 식당인 빨간 간판의 ‘금강산 식당’이 보였다. 근처만 가도 고소한 삼겹살 냄새가 내 코를 벌름거리게 하는 이곳은 한국인은 물론이고 현지 중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곳이다. 하지만 오늘은 쉬는 날인지 한결이 아빠가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있었다.

“아빠 준수도 같이 가도 되죠?”

한쪽 어깨에 카메라를 멘 한결이 아빠가 나와 한결이의 등 두드리며 말했다.

다.

“그럼. 되고말고. 함께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니?”

한결이 아빠는 알 수 없는 말을 했고 한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저씨 어디 가는데요? 진짜 신상 포카 구할 수 있어요?”

“오늘 마침 새로운 포토 카드가 나오는 날인데 준수가 운이 좋구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포.카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는 내내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한결이 아빠의 오래된 자동차의 덜컹거림조차도 내 마음을 간질이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곳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왕징 지역의 사진관이었다.

‘기억 사진관’이라는 한글 간판이 걸린 사진관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어서 오너라.”

“할머니, 포토 카드 나왔어요?”

한결이가 묻자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한결이 아빠가 필름 한 통을 내밀었다.

“이것도 포토 카드로 만들어주세요. 지난주에 다녀온 만주 길림성에 있는 태극기 동굴 사진이에요.”

“한결아빠. 수고가 많아요.”

할머니는 건네받은 필름을 들고 암실에 두었다. 나는 점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한결이와 할머니를 보면서 고개만 갸웃거렸다.

곧이어 할머니는 지난주 사진을 포토 카드로 만들었다며 들고나오셨다.

“신상 카드다.”

달려가는 한결이의 외침에 내가 먼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카드를 낚아챘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카드가 아니었다.

“어? 이게 뭐야. 이한결. 너 장난하냐? 이게 무슨 아이돌 포.카야?”

나는 단단히 속은 것 같아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한결이는 또 어른이라도 된 듯 나를 내려다보며 픽 웃었다.

“이건 기억 포토 카드라는 거야.”

실망한 나를 달래려는 듯 한결이 아빠가 나에게 요구르트 하나를 건넸다. 달콤한 요구르트의 냄새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단숨에 들이켰다. 짜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기억 포토 카드가 뭐예요?”

“기억을 남기는 포토 카드. 아빠랑 할머니가 만들고 이름은 내가 붙였어.”

한결이가 짹짹 끼어들어 말하며 가방 안에 있던 포토 수첩을 펼쳤다.

“여기 있는 카드들 보이지. 여기 담겨진 사진들은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겨진 곳이야.”

카드 속 사진들은 재개발을 위해 표시해둔 깃발이 세워져 있는 건물, 잡풀만 무성한 빈터, 무너져가는 건물 등 독립운동가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에이 이런 곳이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담겨진 곳이라고?”

한결이 아빠가 다가와 말했다.

“준수야, 책에서 보던 사진과 많이 다른 모습이지? 이곳들 역시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 곳이란단다. 중국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많아. 하지만 방치되어 폐허가 되거나, 중국의 재개발로 하나씩 사라지고 있지.”

“그래서 독립운동가 사적지 보존 모임을 만들어 이렇게 사진을 찍고, 포토 카드로 남겨두고 있어. 사라지기 전에 하나라도 더 남겨야 해.”

흔들림 없는 한결이의 끝은 목소리가 나의 몸을 흔드는 것 같았다.

그때 사진관 할머니가 굵은 손가락으로 수첩에 있는 포토 카드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이 집은 중국으로 도망쳐온 우리 가족들이 살던 집이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독립운동을 하셨거든”

마치 전래동화처럼 들리는 이야기에 나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다.

“정말요?”

내려앉은 눈꺼풀에 반쯤 가려진 할머니의 눈은 그때를 회상하듯 초승달처럼 변해 웃고 있었다.

“그럼 그럼. 우리 집에 밤이고 낮이고 독립운동가들이 찾아오면 아버지 어머니는 몸도 숨겨주고, 끼니도 해결하고, 잠도 재워주고 했다지. 그러다 일본군한테 발각 되서 아버지는 고초를 겪다 돌아가셨어.”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할머니가 사진관 낡은 서랍장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지. 사진 한 장.”

오래된 가족사진이었다. 한복을 입은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있었고,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꼬마 아이가 있었다. 그 꼬마 아이가 할머니라고 했다.

“할머니 이 사진은 왜 포토 카드로 만들지 않아요?”

한결이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에이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 이걸…”

할머니는 암실에서도 또렷이 보일 만큼 새하얀 손등으로 하얗게 바래져 가는 사진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가 끝에 맺힌 투명한 눈물이 사진관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저 갖고 싶어요. 우리가 모르는 독립운동가의 흔적이잖아요. 이 사진도 만들어 주세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사진관을 나오며 한결이가 나에게 말했다.

“준수야, 다음 주에 사적지 한 곳을 갈 건데. 같이 갈래?”

“좋아.”

기다리던 한 주가 지나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베이징시 동성구에 있는 한 건물 앞이었다.

먼저 도착한 보존 모임 회원들이 저마다 준비한 것들을 꺼내었다.

“한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꼭 제사 지내는 거 같다.”

돛자리, 작은 상, 음식들을 보니 명절의 제사상이 생각이 났다.

“맞아. 이 건물에서 숨을 거둔 독립운동가의 넋을 기리는 제를 지내기 위해 모였어.”

소박하게 제사 음식들이 차려지고 한결이는 들고 있던 액자를 모두가 잘 보이게 내려놓았다.

제를 올리려던 그때였다. 중국인 몇몇이 나와 거세게 항의했다.

여기는 지금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여기서 왜 제사를 지내냐며 막무가내로 우리를 밀어냈다. 또 다른 몇몇의 중국인들은 같은 식민전쟁의 피해자인 우리를 이해한다며 두둔하기도 했다.

주위가 혼란스러워지자 하는 수 없이 준비해간 음식들을 거두고 간단히 목례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해야 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께 감사의 인사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구나...’

안타까운 현실에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한결아 나도 기억 포토 카드 수집할래. 어떻게 하면 돼?”

한결이와 나는 사진관으로 향했다.

“할머니, 지금까지 만든 포토 카드 모두 주세요.”

“전부?”

“네.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카드 속 사진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

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외로이 사라져가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할머니께서 중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 회원들에게 사진을 받아 제작한 포토 카드의 양은 상당했다. 나와 한결이는 사이 좋게 가방 안에 나눠 담았다.

“이제야 이 카드들이 빛을 보는구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곧 세상에 없을 텐데... 타지에서라도 오직 내 나라만을 생각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 준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너희 같은 아이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고맙다.”

할머니의 얼굴을 타고 내린 눈물은 한 장의 포토 카드 위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 꼬마 아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의 홍보 덕분일까. 아이들이 모임의 회원으로 조금씩 늘어났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2명이 더 모였다. 웅성대는 아이들 속에 한결이가 목청 높여 크게 소리쳤다.

“오늘 소개할 카드는 기.포.카 21번. 베이징에 있는 동창호동 28호. 이육사 순국지.”

한결이의 이야기를 듣던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기.포.카는 무슨 뜻이야?”

“기억을 남기는 포토 카드”

우리에게는 아직 소개해야 할 기억 포토 카드가 많다.